

##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과 그 사료적가치

박사 부교수 옥명심

###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임진조국전쟁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인 애국투쟁이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7권 62페이지)

임진조국전쟁(1592—1598)은 우리 인민이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싸운 중세 우리 민족사상 가장 규모가 큰 전인민적항전이었다. 간악한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7년간의 나날 우리 민족이 발휘한 애국적투쟁의 역사는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문화유산의 하나인 금석문을 통해서도 전해지고있다.

임진조국전쟁에 대하여 기록한 금석문들은 중세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며 오늘날 인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반일계급의식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장악한 자료에 의하면 임진조국전쟁이 반영되어있는 금석문은 모두 비석들이다. 임진조국전쟁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들은 많지만 돌을 다듬어 글자를 새겨 세운 비석은 대체로 사람들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해당 시기의 역사적사실들과 애국적인물들의 위훈을 감회깊게 그려볼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류다른 감화력을 가진다. 임진조국전쟁의 역사적사실을 기록한 비석은 전쟁당시의 상황에서는 세워질수 없었으므로 대체로 전쟁이 끝난 후 세워졌다.

이 글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이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에 세워진 비석들을 위주로 하여 비문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가지는 사료적가치를 분석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한 금석문을 따로 문의한 논문은 없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비문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되지 못하였다.

도서 《우리 나라 금석문》(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87(1998).)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 보존되어있는 금석문 2백수십여개에 한하여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문을 주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한 금석문은 연성대첩비와 청허당비, 서덕린행적비, 서관삼진의렬비 등 일부만을 소개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도서 《조선중세비문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6(2007).)에서는 중세시기의 비문들에 기록된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력사를 서술하면서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투쟁을 반영한 북관대첩비와 서관삼진의렬비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 도서에서도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한 비문들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있으며 자료를 다루면서 다른 문헌들과의 대비적인 분석을 심화시키지 못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들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

지 못하고 대표적인 일부 비문자료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었다.

론문에서는 선행성파에 토대하면서 임진조국전쟁의 역사적사실을 기록하여 세워진 비문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가지는 사료적가치를 분석하였다.

론문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세워진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을 전부 수집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비석을 세운 목적과 기록된 내용, 그 종류에 따라 일본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세운 대첩비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일어나 정의의 항전에서 몸바쳐 싸운 개별적인물들의 공적을 기록한 비석들, 전쟁시기 장렬하게 희생된 련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애국정신을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세운 비석들로 구분하고 20여개의 비문자료를 부류별로 소개하였다.

론문에서는 다음으로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이 가지는 사료적가치를 론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들은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투쟁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임진조국전쟁의 역사적사실을 반영한 비문유산의 사료적가치는 우선 문헌기록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자료들을 제시해주거나 그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여준다는데 있으며 또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문헌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선것으로 하여 원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는데 있다. 론문에서는 그것을 여러 문헌자료들과 대비적으로 분석고증하였다.

## 2. 본 론

### 2.1.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

지금까지 장악한 자료에 의하면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석은 20여개정도이다.

임진조국전쟁의 역사적사실을 반영한 비석은 그것을 세운 목적과 반영하고있는 내용 그리고 비석의 종류에 따라 몇가지 부류로 구분하여볼수 있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으로는 우선 간악무도한 일본침략자들과 싸워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전투들에 대하여 민족적공지감을 가지고 기록한 대첩비들이 있다.

조국강토를 침략한 일본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대승리를 거둔 역사적사실을 기록하여 세운 대첩비들은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석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비석들에는 당시 전쟁의 상황과 사건, 사실들이 반영되어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가 주어진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의 역사를 력력히 알수 있게 하여준다.

행주대첩비, 연성대첩비, 북관대첩비, 수군대첩비, 명량대첩비와 같은 대첩비들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왜적과의 싸움에서 이룩한 대승리들을 긍지롭게 기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대승리를 기념하여 먼저 세워진 비석은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이다. 이 비석은 권률(1537-1599)이 지휘한 1593년 2월 행주산성전투에서의 대승리를 기념하여 1602년에 경기 고양에 세운것이다. 비석의 앞면 윗부분에는 《원수 권공 행주대첩비》라고 전자로 제목글을 새겼다. 비문은 당시 중추부 동지사였던 최립이

짓고 유명한 명필이었던 석봉 한호가 글씨를 썼으며 절충장군 김상용이 전자를 썼다.

비문에서는 먼저 임진조국전쟁초기 형편을 간단히 쓰고나서 리치전투, 행주산성전투 등 권틀이 참가한 주요전투와 활동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비문에서는 특히 적의 화살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2 300명의 군사로 3만여명이나 되는 침략군의 9차례의 공격을 물리치고 성을 끝까지 사수한 행주산성방위자들의 투쟁과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권틀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행주대승리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비문의 마감부분에서는 권틀이 나라에 세운 공적과 지니고있는 덕망을 평가하여 봉건정부에서 취한 조치들과 죽은 후에도 명나라와 왜나라에까지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던 사실들을 전하고있다.

비문에는 행주대첩비를 세우게 된 경위도 새겨져있다. 그에 의하면 권틀이 죽은지 한 해가 되자 그와 함께 참전하였던 군사보좌관들이 당시 령의정이었던 권틀의 사위 리항복에게 청하여 이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연성대첩비(延城大捷碑)는 1592년 연안성에 침입해온 왜적의 대부대와 용감히 싸워 적들을 물리친 이곳 인민들과 당시 연안성방어전투를 지휘한 의병장 리정암(1541-1600)의 전승무공을 기념하여 세운 비이다.

이 비석은 1608년 황해도 연안에 세워졌다. 비문은 비석의 한면에만 새겨있는데 옷부분에 《연성대첩비》라고 전자로 제목글을 새기고 비문내용은 해서로 썼다. 비문은 당시 좌의정이었던 리항복이 짓고 글은 대사헌 정사호가 썼으며 전액은 행주대첩비의 제목글을 쓴 바 있는 김상용이 썼다.

연성대첩비에는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내외정세와 조선봉건정부의 립장, 전쟁초기에 우리 인민이 왜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 전투들을 소개하였다. 비문의 기본내용은 연안성전투에 대한것이다. 여기에서는 리정암이 연안으로 오게 된 사연과 연안성군사들과 인민들의 싸움준비, 1592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진행된 연안성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의병장 리정암의 공적과 결부시켜 기록하였다. 비문에서는 계속하여 조정에 알린 리정암의 전투보고와 그에 대한 평가, 연안성싸움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1565-1624)를 비롯한 함경도지방 의병들이 자기 지방에 기여든 일본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대승리를 이룩한 력사적사실을 기록하여 세운 승전비로 널리 알려져있다.

20세기초 일제에 의해 략탈당하였던 북관대첩비는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북파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의하여 오늘 함경북도 김책시 립명리에 세워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7(2008)년 5월 10일 이 비석을 돌아보시며 북관대첩비를 일제의 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정신과 억센 기상,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승전비로 영원히 잘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관대첩비를 비롯한 력사유적유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인민들이 반일애국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이 있을 때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1708년에 길주목 립명에 세웠던것이므로 일명 립명대첩비(臨溟大捷碑)로도 전해온다. 비앞뒤면에 글자가 있는데 앞면 맨 오른쪽에 전서체로 《북관대첩비》라고 썼다. 비문은 최창대가 지었으며 윤덕준이 전

액을, 리명필이 글을 썼다.

북관대첩비에서는 정문부가 지휘한 함경도의병투쟁의 지위를 밝힌 다음 왜적들의 침략경위와 반역자들의 준동, 정문부의병대의 조직과정과 의병대가 벌린 주요전투들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계속하여 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밝히었다.

비문의 기본내용은 정문부의병부대의 조직경위와 투쟁활동이다. 비문에서는 일본침략군 우두머리들중의 하나인 가등청정이 부대를 끌고 함경도지역으로 침입하였을 때 리봉수를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이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정문부를 대장으로 내세웠다는데 대해서와 1592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문부의병부대가 벌린 투쟁활동과 혁혁한 전과를 자랑스럽게 기록하였다.

비문에는 이 비석을 세우게 된 경위도 서술되어있다. 1700년에 이곳 북평사로 임명된 최창대는 임진조국전쟁의 력력한 자취가 깃든 립명, 쌍포 등지의 성과 진지들을 돌아보고 감탄하면서 관북의병들의 공적이 전해지지 못하고있는것을 아쉬워하며 비석을 세우도록 하고 자기가 비문을 지었던것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수군의 승전을 기록한 비석으로는 리순신 수군대첩비(水軍大捷碑)와 명량대첩비(鳴梁大捷碑)가 있다.

수군대첩비는 좌수영대첩비라고도 전해온다. 이 비석은 1620년에 전라도 려수에 세운 것인데 중추부 령사 리항복이 비문을 짓고 돈녕부 지사 김현성이 글씨를 썼으며 김상용이 《통제사 리공 수군대첩비》라는 전액을 썼다. 비문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전라좌수영의 수군이 옥포와 로랑, 당포, 툐포, 한산도, 안골포에서 조선수군의 위력을 크게 떨친데 대하여서와 원균의 패전으로 전멸의 위기에 처했던 수군이 다시 일어나 로랑에서 대승리를 거둔데 대하여 리순신(1545-1598)의 공적과 결부시켜 전하고있다.

명량대첩비는 1688년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였던 박신주의 주관하에 전라도 해남에 세워졌다. 레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리민서가 비문을 짓고 글은 돈녕부 판사 리정영이 썼다. 전서체로 된 《통제사 충무리공 명량대첩비》라는 제목글은 17세기 국문소설작가로 유명한 김만중이 쓴것이다.

비문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수군의 활동을 간단히 쓰고 거기에서 특히 명량싸움이 가장 기이하였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그후 전장에서 최후를 마친 리순신장군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후 조정에서 적을 평정한 공적을 논의하면서 그의 공을 으뜸으로 인정하여 선무공신의 칭호를 주고 좌의정의 벼슬을 추증하였으며 로랑에 충민사를 세우고 제사지낸데 대하여 기록하였다.

리순신장군과 관련하여 중세시기에 세워진 비석들로는 이 두 비석외에도 타루비, 리순신충렬묘비(사당비), 리순신신도비가 전해지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첩비들은 임진조국전쟁초기 룡지싸움에서 거둔 대승리인 행주대첩, 연성대첩, 북관대첩과 수군의 눈부신 전과 특히 명량대첩에 대하여 전투를 지휘한 지휘관들의 공적과 결부시켜 특기하고있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으로는 또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정의의 항전에서 몸바쳐 싸운 개별적인물들의 공적을 기록한 비들이 있다.

전쟁을 비롯한 중요한 력사적사건이나 사실이 인물들과 관련이 없는것이란 없다. 그러

나 일정한 사실, 사건 그자체보다도 개별적인물들의 위훈이나 공적을 찬양할 목적에서 세운 비석들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비석들로는 개별적인물의 공적을 찬양하여 세운 기적비와 외적과의 싸움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한 의렬비, 개별적인물의 무덤에 세운 무덤비를 들 수 있다.

임진전쟁시기의 애국적인물들의 공적을 찬양하여 세운 기적비와 의렬비들로는 청허당비와 조헌전장기적비, 서덕린행적비, 김시민전성각적비, 서관삼진의렬비를 들 수 있다.

청허당비(淸虛堂碑)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애국적승병장으로 이름을 떨친 서산대사(1520-1604)와 관련하여 세워진 대표적인 비석이다.

청허당비는 1632년 금강산과 1711년 묘향산에 세워진 비로서 두 비문의 내용이 같다. 비문의 명칭은 《국일도대선사를 하사한 청허당비명》이다. 이름난 문인이며 당시 좌의정이었던 리정구가 비문을 짓고 신익성이 비문의 글과 전자를 썼다.

서산대사는 중세 우리 나라 중들가운데서 애국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임진조국전쟁때 72살의 나이로 8도16종도총섭으로 임명되어 전국의 중들을 왜적격멸으로 불러일으켰으며 직접 승병을 거느리고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며 력사에 널리 알려져있다. 서산대사는 법명이 휴정이고 호를 청허당이라고 하였고 흔히 묘향산에 있었으므로 호를 서산이라고도 하였다.

청허당비에는 휴정의 출생과 중이 된 경위,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의 생활력력이 실려있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 휴정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그에 의하면 임진년에 임금이 의주로 피난갈 때 서산대사는 검을 들고 임금을 찾아가 나라안의 모든 중들을 거느리고 왜적과 싸울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제자들인 사명당, 처영과 함께 평양성탈환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청허당비에는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사망하기전까지의 휴정의 행적과 그의 일생업적에 대한 평가도 씌여져있다.

조헌전장기적비(趙憲戰場紀蹟碑)는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치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조헌(1544-1592)의 공적을 찬양하여 1710년에 충청도 청주의 옛 싸움터에 세운것이다. 홍문관 대제학 김진규가 비문을 짓고 청도군수 리수실이 글씨를 썼으며 리방언이 《문렬공 증봉조선생 전장기적비》라는 전액을 썼다.

비문에는 전라도 도사의 벼슬에 있던 조헌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일본의 침략기도가 보이자 이를 방어할 대책을 상소하고 호남, 령남지방에서 성곽을 보수하는 등 미리 방비대책을 세운 사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보은 등지에서 적을 격멸한 사실, 이해 8월 초하루날 령규가 지휘하는 승병부대와 합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한 후 금산에서 왜적의 대병력과 싸우다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전사한 사실들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한편 조헌의 비석을 세우게 된 경위도 실려있는데 《어리석은자》들의 시기와 질투, 배척을 받아 조헌의 공적이 세월과 더불어 희미해지는것을 애석하게 여긴 청주사람들이 조헌의 절개와 충의를 잊지 못해 이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서덕린행적비(徐德麟行蹟碑)는 1848년 오늘의 함경남도 홍원군 호남리에 세워졌다. 이 비석은 임진전쟁시기 의병장으로서 왜적들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서덕린의 공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비석의 명칭은 《전력부위 서덕린행적비》이다.

비문에서는 서덕린이 임진조국전쟁초기 고향에서 류응수와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적을 물리쳤고 1597년에 왜적이 다시 침습해들어왔을 때에는 말을 타고 경주에서 용감히 싸

운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김시민전성각적비(金時敏全城却敵碑)는 김시민(1554-1592)이 적들을 물리치고 진주성을 지킨 사실을 기록한 비석으로서 1619년에 진주고을사람들이 경상도 진주에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고 목사 김시민전성각적비》라고 전서로 쓴 제목글이 있다. 비돌의 아래부분은 글자들이 마멸되어 일부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비문의 전반적내용은 대략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비문에서는 무관출신인 김시민이 충성과 의리와 용맹을 지니고 임진년 10월 진주성으로 달려든 왜적과의 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 3대승리의 하나인 진주대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데 대하여 기록하고있다. 김시민이 지휘한 진주성싸움은 우리 군민의 승리로 끝났으나 적들이 퇴각한 후 그는 시체속에 숨어있던 적패잔병의 총탄에 맞아 부상당하여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비석은 진주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김시민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그 공적을 후세에 전하려는 의도에서 세운 비석으로서 대첩비들과 일련의 차이가 있다.

서관삼진의렬비(西關參陣義烈碑)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대를 못하고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중화 서진의병대의 투쟁사실을 기록한것으로서 1732년에 중화에 세워졌다. 비문은 앞뒤면에 새겨졌는데 앞면 맨 윗쪽에는 전서체로 《서관삼진의렬비》라고 썼다. 비문은 리조판서 송인명이 지었으며 레조참판 리진순이 전액을, 사간원 대사간 조명교가 비문의 글을 썼다.

서관삼진의렬비에서는 중화지방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킨 경위를 서술하였으며 서진의 립 중량의병대가 적의 공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춘 사실, 의병들이 왜적들과 벌린 치렬하고 희생적인 투쟁 특히 임진년 12월 초하루날 서진성의 함락과 성과 운명을 같이 한 400여명 《의사》들의 장렬한 최후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무덤비들에도 임진조국전쟁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의 공적이 새겨져있다.

일반적으로 무덤비에는 죽은 사람의 생존시기와 그의 행적이 주로 소개되며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일생의 업적을 찬양하는 간단한 명문(銘文)이 기록된다. 무덤비가운데서 죽은 사람의 무덤에 세운 비석을 묘비라고 한다. 또한 무덤비의 한 형태로서 신도비(神道碑)라고 불리우는 비석이 있다. 신도비는 신령이 드나드는 무덤길이라고 하는 《신도》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주로 무덤의 동남쪽에 세운다. 묘비나 신도비들에는 흔히 무덤주인의 조상 및 자손관계를 기록하는것이 관례이면서도 이와 함께 일생 행적과 공적도 기록된다.

룡강의 김응서(1564-1624)무덤에는 그의 묘비와 신도비가 있다. 김응서묘비(金應瑞墓碑)는 본래 1796년에 관서지방의 절도사를 한적이 있는 채제공이 비문을 지은것인데 1924년에 김응서의 11대손인 김태범이 글씨를 써서 다시 세운것이 오늘까지 전해온다. 김응서 신도비는 1799년에 세웠다. 이 비석의 비문은 민중현이 짓고 글은 서유린이 썼으며 심이지가 전자를 썼다.

김응서의 묘비와 신도비는 내용이 거의 류사하다. 비문들에는 김응서의 집안래력과 어린시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의 일생 행적이 기록되어있다. 비문들에서는 임진조국전쟁초기의 형편과 평양성탈환전투과정을 김응서의 공적과 결부시켜 기록하였으며 전쟁기간과 그 이후시기 김응서의 활동과 애국적공적을 서술하였다.

1869년에 평북도 염주에 세운 리지시신도비(李之詩神道碑)는 임진전쟁시기 왜적을 물리치며 싸우다가 희생된 리지시(?-1592)와 그의 동생 리지례의 공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에 세운 비석이다. 비문은 리조판서 윤정현이 짓고 병조판서 신헌이 비문과 전액을 썼다.

비문에는 리지시형제의 경력이 소개되어있으며 임진조국전쟁초기 그들의 활동이 실려 있다. 리지시는 전라도순찰사 리광의 휘하에서 룡인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실패하고 최후를 마친 장수이다. 비문에서는 1592년 6월 5일 왜적과의 싸움에 목숨을 바친 리지시형제의 투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있다.

함흥일대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의병을 일으키고 왜적들과의 싸움에 앞장섰던 의병장들의 투쟁을 기록한 무덤비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오늘의 함경남도 영광군에 있는 박응송신도비(朴應嵩神道碑)와 리유일묘비(李惟一墓碑)이다.

박응송신도비는 함경남도 영광군 화장리의 토서봉아래에 있는 박응송의 무덤에 세운 비석으로서 1882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졌다. 비문에서는 임진년에 《왜적의 독기가 사나와서 8도에 길이 막히고 진영들이 함락되었을 때 박응송이 충의와 울분을 누를길 없어 11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면저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창의공신》으로서 충성과 용맹을 다하여 《한번 출동하여 관북땅을 안정시키고 다시 진군하여 평남지역을 평정》한 그의 공적을 전하고있다.

리유일묘비 역시 임진전쟁때 함흥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운 리유일(1537-1606)의 무덤에 세운 비석이다. 비석은 1893년에 세워졌다. 비문에 의하면 리유일은 158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권관벼슬을 받은 무관이였다. 그는 임진년 가을 란리중에 훈련원 정으로서 갑산부사로 임명되었는데 부임하지 않고 의병을 조직하여 힘을 다해 왜적들을 물리쳤다고 한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으로는 또한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싸우다 장렬하게 희생된 애국적인물들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던 사당에 세워진 비석들도 있다. 이러한 류형의 비석은 대체로 사단비(祠壇碑)에 속한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당을 세우는것은 그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이며 비석을 세우는것은 그 공을 잊을수 없기때문이라고 하였다.

흔히 사단비는 천지신명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만든 사당 또는 제단에 세우며 여기에는 해당 사당이나 제단을 만들게 된 경위와 거기에서 제사지내는 대상을 기록한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사단비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주고 선조들의 애국의 녁과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건립되었다.

사단비의 대표적인 실례로는 묘향산 수충사비를 들수 있다. 이밖에 함흥의 창의사비, 신흥의 룡충사사단비, 어랑의 모의사비 등도 사단비들이며 평양의 계월향비도 마찬가지이다.

수충사비(酬忠祠碑)는 임진조국전쟁때 승병장으로 활동한 서산대사를 제사지내던 수충사에 대하여 기록한것이다. 비문에서는 서산대사의 일생 행적과 수충사를 세우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있다.

이 비석은 묘향산 수충사에 있는데 1796년에 세운것이다. 비석의 앞면에는 《수충사비》라는 비문의 명칭을 전자로 새기였다. 비문은 당시 평안도판찰사였던 리병모가 짓고 녁변 대도호부사이며 이름난 명필이였던 서영보가 비문의 글씨와 전자를 썼다.

수충사비에 실린 임진조국전쟁시기 서산대사의 활동과 공적에 대한 기록은 청허당비

와 거의 같다. 수충사비 비문에서는 이뿐아니라 나라에서 서산대사를 위한 사당을 세워 충의를 장려한데 대하여 쓰고있다. 그에 의하면 조정에서는 서산대사의 공로를 표창하여 밀양에 사당을 세우고 현판을 표충사라고 하였으며 1789년에 해남에도 사당을 세우게 하였다. 몇해후인 1793년에는 묘향산에 사당을 세우고 나라에서 《수충사》라는 편액을 내려주었으며 사명당을 아울러 제사지내도록 허락하여주었다. 수충사비의 명문에서는 서산대사의 공적과 그의 제자인 송운 사명당의 애국적사적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스승과 제자 두분이 함께/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거니》, 《아, 관서땅 백성들이여/여기 와서 저 모습 우러러보라/ 모두가 그 충의를 본받기 위해/밤낮으로 마음을 수양하여라》라는 호소로 마무리를 짓고있다.

함경남북도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이 지역에서 싸운 사람들을 위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에 대하여 기록한 비석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1721년 함흥에 세운 창의사비(彰義祠碑)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희생된 12명의 《의사》들을 제사지내던 사당인 창의사의 연혁을 기록하여 세운 비석이다.

비문에 의하면 창의사는 함흥부의 남문밖에 있었는데 임진조국전쟁시기 목숨을 바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 이 사당에서는 류응수와 리유일, 한인제, 백응상, 박길남, 정해동, 박중립, 리희록, 박응송, 리사제, 한경상, 김응복과 같은 사람들을 제사지내었다. 사당을 세운 뒤로 봄, 가을 제사를 지낼 때면 멀고가까운곳의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 모여들어 봄비면서 그들의 기상과 절개를 숭상하였는데 이 일은 이 지방의 풍습으로 전해져 후세사람들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육충사사단중수비(六忠社祀壇重修碑)는 1895년 함경남도 신흥에 세워진것이다. 이 비석은 임진전쟁때에 왜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류응수일가를 제사지내던 사단을 중축한데 대하여 기록한 비석이다. 비문은 《임진년 란리때 의병을 일으키고 왜놈은 함께 살수 없는 원쑤라는 원한을 품고 군사를 모아 적의 무리를 치》다가 전사한 류응수와 그의 동생 류응춘, 의병을 일으켜 적을 치려다가 밀고자에 의해 붙잡혔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죽음을 당한 류응수의 아버지네 세 형제의 《장하고 거룩한》 장거를 전하고있다.

이밖에 창렬사유허비와 승렬사원유허비의 기록들도 정문부를 비롯한 관북《의사》들을 제사지내고 추모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함경도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정문부와 함께 싸운 수십명 의병들의 애국적공적과 위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사당과 비석들을 세우고 추모하는 풍습이 후세에도 계속되었음을 알수 있다.

계월향비(桂月香碑)는 임진전쟁시기 평양성에 침입한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계월향(?-1592)의 공적과 그를 제사지내는 사당인 의렬사에 대하여 기록한 비석이다.

비석은 평양이 낳은 애국명기 계월향의 아름다운 넋을 안고 대동강가에 솟아있는 려관정의 왼쪽에 서있다. 비문의 명칭은 《의렬사의 의로운 기생 계월향비문》이다. 비문은 1835년에 당시 평안도관찰사를 하던 정원용이 짓고 평양부 서운 김응근이 글씨를 썼다.

비문에서는 먼저 1592년에 평양성에 침입한 왜적들의 진중에 들어가 놈들의 동향을 내탐하여 아군부대에 알려주고 김응서를 안내하여 왜장을 차단함으로써 적들을 혼란케 한 월향의 애국적소행을 기록한 다음 의렬사를 짓게 된 경위와 이 사당에서 해마다 봄과 가을



에 월향을 제사지낸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비문은 임진조국전쟁에서 발휘된 조선여성들의 애국적의지를 찬양하고있으며 그것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려는 평양성사람들의 애국정신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석들은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왜적들과 용감히 싸웠거나 전쟁에서 희생된 렬사들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애국심과 절개를 장려하게 하며 가렬치절하였던 임진조국전쟁을 잊지 말고 선조들의 애국의 넋과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 2.2.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유산의 사료적가치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은 그것이 담고있는 풍부한 자료와 원자료로서의 특성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연구에서 커다란 가치를 가진다.

임진조국전쟁의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비문유산의 사료적가치는 우선 문헌기록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해주거나 그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여준다는데 있다.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한 력사적사실이나 인물들에 대해서는 서지문헌들에도 폭넓게 반영되어있다. 그러나 문헌기록들에 거의 없거나 소략한 자료들이 비문에 올라있는것도 있다.

실례로 리지시신도비에 실린 리지시와 그의 동생 리지례에 대한 자료는 다른 문헌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자료이다.

비문에는 리지시형제의 경력과 활동이 소개되어있다.

리지시형제는 어려서부터 경전과 사서를 익히였으며 특히 병서를 읽기 좋아하고 활쏘기에도 능하였다고 한다. 후날 리지시는 여러 벼슬을 거쳐 경원부사로 되었고 동생 지례는 길주목사로 되어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비문에는 리지시와 관련한 일화들도 기록되어있다.

원수 신립은 본래 재주가 있는것으로 자부하였으나 무과과거시험에서 리지시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부끄러워하였다. 후에 두사람이 재주를 겨루었으나 신립은 자신이 못하다는것을 느끼였다고 한다.

신립은 일찌기 녀진족을 정벌하는 싸움에서 공로가 있었고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도순변사로서 관군의 큰 무력을 통솔하고있었으나 충주싸움에서 전술상착오로 하여 패하고 전사하였다. 리지시와 신립에 대한 기록은 리지시의 무관다운 기질과 능력을 다소나마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

비문에 의하면 리지시는 조헌이나 리순신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였다. 중봉 조헌은 지시를 평생의 벗으로 삼으면서 나라를 위한 이름난 장수가 되기를 기대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리지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군절도사인 리순신과 잘 아는 사이여서 그에게로 가서 함께 싸우려 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조헌은 전란이 터진 소식에 접하자 분연히 일어나 충청도에서 제일먼저 의병의 기치를 들고 싸우다가 전사한 애국적인 의병장이며 리순신은 임진조국전쟁에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우고 희생된 애국명장이다. 리지시가 조헌과 리순신의 벗으로서 평소부터 뜻을 같이하고 서로 격려한 사실은 그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열렬한 장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비문에서는 무관으로서의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있던 리지시가 동생과 함께 김천과 금산에서 적들을 전술적으로 제압하고 한성으로 복상하기 위한 직산, 룡인전투에서 영

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사실을 매우 상세히 싣고있다. 이와 함께 상관인 전라도 관찰사 리광의 무능과 비겁성이 전쟁에 얼마나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선조수정실록》(권 26 임진년 6월조)에 실린 기사에는 리지시와 관련한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리광이 통인에 주둔한 적을 치기 위해 선봉장 리지시와 백광언에게 각각 군사 1천명씩 주어 선발대로 보냈으나 그들은 적의 유인전술에 걸려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불의에 총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적들에게 먼저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두장수는 다 용맹하고 힘센것으로 이름났던것인데 그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전체 군사들이 사기를 잃었다.》고 극히 단편적으로 기록해놓았다.

《조선증세인물호편람》(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5(2016).)에 의하면 리지시는 리문호의 아들로써 자는 영이, 호는 송암, 시호는 경의이며 벼슬은 주서를 지내었다고 하였다. 《조선단대사》 《조선봉건왕조사》 4(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0(2011).)를 비롯한 력사관계도서들에서는 립진강방어작전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리지시에 대하여 극히 단편적으로 언급하였다. 리지시의 동생 리지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리지시신도비문은 임진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의 일단을 상세히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의 하나로 된다.

한편 의병장 서덕린에 대한 자료도 비문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 서덕린행적비에 의하면 높지 않은 무관의 가문에서 나서자란 서덕린은 본래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강개한 뜻을 가지고 낮에는 활쏘기를 하고 문암산에서 돌돌기를 하여 힘을 키웠으며 밤에는 글을 읽어 병법을 익혔다. 임진년에 왜적이 갑자기 달려들자 고을원들은 도망쳐 달아났으나 그는 류응수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적을 칠 계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1597년에 왜적이 다시 침습해들어왔을 때에는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의병을 따라나서서 경주에서 용감히 싸웠는데 적들과 싸우던중 그의 말이 눈 하나를 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외눈이말장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외눈이말장군》 서덕린에 대한 자료도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이상의 자료들은 임진조국전쟁시기에 활동한 무관출신의 장수들과 의병장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는데 가치가 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연구에서 금석문의 의의를 한층 부각시켜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중화지방 의병들의 활동을 기록한 서관삼진의렬비는 다른 문헌기록들보다 매우 상세한 자료를 전해주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비문은 립중량의 지휘밑에 고향을 지켜 용맹하게 싸운 서진의병대의 전투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며 의병장 립중량의 담대한 배짱과 전술적지략, 의병대의 투쟁에 넋을 잃고 광질광하는 왜적들의 몰골도 잘 보여주었다.

비문에서는 서진의병들이 왜적들과 벌린 치렬하고 희생적인 투쟁과 장렬한 최후에 대하여서도 실감있게 기록하고있다.

비문에서는 후에 조정에서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쳐물리친 중화사람들의 공적을 평가하여 군을 승격시켜서 부로 만들었다는것과 싸움에서 희생된 수십명의 평범한 인물들의 이름과 경력, 후날 나라에서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준 벼슬 등을 기록하고있다.

서진의병대의 투쟁사실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른 문헌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 《조선단대사》, 《조선봉건왕조사》 4(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0(2011).)를 비롯하여 최근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역사를 서술한 문헌들에도 름중량의병대의 활동내용이 극히 소략하게 서술되어있으며 특히 의병들의 최후와 관련한 자료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서관삼진의렬비의 비문에 의하면 1730년대에 관서지방의 절도사로 와있었던 송인명은 임진조국전쟁시기 목숨을 바쳐 싸운 이곳 사람들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고 항간에 묻혀있는것을 아쉽게 여기면서 《서진고사》라는 책에 의거하여 《관서충효록》을 만들었으며 아울러 이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서진고사》나 《관서충효록》이 전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이 비문은 서진의병대의 활동을 가장 상세하게 알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리정암의병대의 연안성싸움을 기록한 연성대첩비에도 문헌기록들에 보이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

1592년 8월 28일 적들과의 싸움이 한창 치열할 때 리정암이 형세가 긴박해지자 풀더미우에 앉아 아들 준에게 《성이 함락되면 내스스로 이 풀더미에 불을 달리로다.》라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한결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힘을 다해 싸웠다는 이야기는 비문에서만 볼수 있다. 그리고 싸움에서 적들이 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퇴각한 후 우리 군사들이 《적의 머리 18개를 자르고 소와 말 90여필과 군량 130여섬을 빼앗았다.》고 한 전과자료도 다른 문헌들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지 않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적들이 물러간 다음 《즉시 군사를 내보내어 쫓아가 쳐서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은것이 매우 많았다.》(《선조수정실록》 권26 임진년 9월)고 하였고 리공익의 《연려실기술》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하였을뿐이다. 따라서 연성대첩비 비문은 의병장 리정암과 연안성 군사와 백성들이 발휘한 애국적인 투쟁내용과 적들의 패전상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수 있게 한다.

임진조국전쟁의 역사적사실을 반영한 비문유산의 사료적가치는 또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문헌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선것으로 하여 원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는데 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민족이 발휘한 애국적투쟁의 역사는 다양하고 풍부한 민족고전들을 통하여 후세에 전해지고있다. 봉건정부의 주관하에 편찬된 정사나 개인의 견지에서 서술된 야사 그리고 일기책, 문집, 전기형식의 문헌들과 금석문 등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역사를 기록하고있는 민족고전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들은 대부분 어려운 전쟁의 환경에서 제때에 나올수 없었으며 잘 보관할수도 없었다. 전쟁의 역사적승리를 달성한 시기에 와서 사람들은 간고하던 투쟁의 나날을 회상하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애국적용사들의 무훈과 업적을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문헌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가운데서 전쟁후 비교적 이른시기에 이루어진 금석문은 원자료로서 특별히 주목된다.

원래 금석문은 일정한 역사적사건, 사실이 벌어진 해당 시기나 그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지는것으로 하여 일반문헌기록들보다 신빙성이 있으며 사료적가치가 담보된다.

임진전쟁시기의 역사적사실을 반영하고있는 금석문들가운데서도 17세기~18세기초에 작성된 비석들의 비문은 제1차적인 원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볼수 있다. 행주대첩비(1602), 연성대첩비(1608), 김시민전성각적비(1619), 수군대첩비(1620), 청허당비(1632), 명량대첩비

(1688), 북관대첩비(1708), 조헌전장기적비(1710) 같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역사를 반영한 비문이 원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것은 그것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문헌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선것으로 하여 후세의 문헌편찬에 적극 리용된 사실을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행주대첩비를 놓고보더라도 행주산성싸움을 비롯하여 권륜의 전쟁기간의 활동과 투쟁을 이 비문만큼 구체적으로 기록한 앞선 시기의 문헌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행주대첩비는 권륜이 죽은 다음 몇해 되지 않은 1602년 6월 선조왕시기에 세운것이다.

《선조실록》을 보면 행주산성싸움이 있는 1593년 2월 당시의 기록에서 이 싸움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수 없으며 권륜이 죽은 다음의 기록에 윤두수와 정탁이 그의 벼슬을 추증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한 부분에서 약간 언급되고있다.

\* 《권륜은 란리가 일어나자마자 한 고을원으로서 군사를 끌고 들어온것만 하여도 그의 의리와 기개를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 행주싸움에서의 승리로 말하면 전란이 일어난 뒤에 제일 대승리였으며 수도를 도로 찾게 된것은 바로 이 사람의 공로였다고 사람들은 다들 말했던것입니다.》(《선조실록》 권115 기해년 7월 기미일)

《선조실록》은 1617년에 편찬된것만큼 이 자료마저도 행주대첩비보다는 후기의 기록으로 된다. 《선조수정실록》도 1667년에 편찬되었다. 한편 권륜의 문집도 남아있는것이 없다. 1816년에 간행된 《해동명장전》에 권륜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데 이것은 행주대첩비 비문보다 2백수십년이 지난 후의 기록이다.

연성대첩비 비문 역시 연안성싸움을 기록한 가장 초기의 기록으로 보게 된다. 연안성싸움에 대해서는 이 싸움을 지휘한 이정암의 문집인 《사류재집》 8권의 《행년일기》에 보다 생동하게 기록되어있으나 《사류재집》이 편찬간행된것은 1736년이다.

청허당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비석은 서산대사가 죽은지 28년만에 세운것으로서 서산대사의 일생 경력과 행적을 적은 비문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흥미있는것은 《해동명장전》 휴정전에 실린 전기의 내용이 청허당비의 비문과 거의 흡사한것이다. 오히려 비문에는 서산대사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있어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청허당비의 비문이 후세의 문헌편찬에 그대로 리용되었다는것을 명백히 말하여준다.

북관대첩비는 다른 대첩비들과는 달리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한세기가 지나서야 세워졌다. 그것은 정문부가 권세와 불의앞에서 굽히지 않는 강직성과 정의감을 가지고있었고 당파싸움의 희생물로 되어 불우한 운명을 마쳤던것과 관련된다. 정문부는 함경도지방에서 왜적을 몰아낸 공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사 윤탁연의 시기질투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당파싸움에 눈이 먼 봉건통치배들이 그가 지은 시에 국왕을 배반하려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모함하여 1624년에 감옥에서 고문끝에 죽었다. 그후 정문부가 죽은지 수십년이 지나 그를 재평가하고 내세우려는 시도들이 련달은 속에 북관대첩비도 세워지게 되었다.

1700년에 함경도에 북평사로 임명된 최창대는 임진조국전쟁의 력력한 자취가 깃든 성과 진지들을 돌아보고 행주와 연안에는 비석이 있어 그 사실을 후세에 전해주고있으나 관

북의병들의 공적은 전해지지 못하고있는것을 아쉬워하면서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자기가 비문을 지었던것이다. 이에 따라 1708년에야 북관대첩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정문부의 공적을 찬양한 첫 문헌이라고 할수 있다. 북관대첩비 비문은 정문부의 문집인 《농포집》에도 실려있다. 결국 《농포집》을 포함하여 정문부를 찬양한 기록들은 북관대첩비이후의것이라고 볼수 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역사를 반영한 비문이 원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것은 그것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문헌들의 자료를 고증하는데서 기준으로 되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임진조국전쟁이 승리한 후 이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각이한 문헌들이 편찬간행되는 과정에 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전해지는것도 있게 되었다. 이 경우 비문이 원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북관대첩비는 각이한 문헌들에 서로 다른 명칭으로 전해오기도 한다.

1890년에 간행된 《농포집》(속집 권5) 부록에는 《조선국함경도림명대첩비명병서》라고 표제하고 곤륜 최창대가 비문을 짓고 봉화 리명필이 글씨를 썼다고 기록하여놓았다. 이와 함께 정문부의병대가 립명에서 왜적과 싸워 크게 승리한것을 노래한 홍량호의 《림명대첩가》도 실고있다.

한편 함경도지방의 고적들을 소개한 《북관고적》(필사본)에서는 《임진의병대첩비명병서》라고 쓰고 보덕 최창대가 지었다고 하였다.

현재 보존되어있는 비석에는 앞면 맨 윗쪽에 《북관대첩비》라는 제목글을 전서체로 가로쓰고 그아래에 다시 《...조선국함경도 임진의병대첩비명병서》라고 비제목을 내리썼다. 그다음에 《중훈대부 수 장악원 정 지제교 겸 세자시강원 보덕 최창대 지음. 통정대부 리조참의 지제교 윤덕준 전자를 씀. 조산대부 전 행 효릉참봉 리명필 글씨를 씀.》이라고 매우 상세히 새겨놓았다.

이것을 보면 《농포집》에서는 《림명대첩비》로, 《북관고적》에서는 《임진의병대첩비》로 써놓았으나 비석에는 《북관대첩비》로 기록해놓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문헌편찬자들이 편찬목적과 자기의 립장에 따라 각이하게 명명하였기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림명대첩비》라고 한것은 함경도의병싸움에서 립명대첩을 강조한것이고 《임진의병대첩비》라고 한것은 《북관고적》이라는 문헌이 함경도지방의 고적들을 모아엮은 책이므로 구태여 《북관》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기때문일것이다. 《북관대첩비》는 립명대첩을 포함한 함경도지역에서의 여러 전투의 승리를 포괄적으로 담고있다. 이처럼 문헌기록들에서 하나의 비석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경우 그 기준을 어디까지나 실물로 존재하는 비석에 두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결국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역사를 반영한 일반문헌들의 자료는 비문에 기초하여 거의 그대로 씌여지거나 일정하게 가공보충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 3. 결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임진조국전쟁이 반영된 20여개의 비문들은 우리 선조들의 반침략투쟁력사를 보다 새롭고 풍부히 해주며 전쟁후 비교적 이른시기에 이루어진것들은 원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비문들은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불굴의 투지와 결사적인 투쟁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준다. 비문들에는 일본침략군의 제1차침입을 물리친 시기(1592년 4월-1593년 6월) 각지 의병들과 관군의 투쟁 그리고 전쟁기간 수군의 투쟁과정이 비교적 폭넓게 반영되어있으며 그 자료들은 우리 선조들의 반침략투쟁사연구에 귀중한 도움으로 된다.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하여 씌여진 일부 비문들에는 내용이 극히 단편적으로 된것도 있으며 명장들과 개별적인물들의 나라위한 애국충정을 봉건국왕에 대한 충군사상과 결부시켜 서술한것과 같은 제한성이 있으므로 이런 점들은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간악무도한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수백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 준엄했던 전쟁의 력사를 기록한 옛 비석들은 불의와 압제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은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오늘날도 거연히 서있다.

우리는 앞으로 선조들의 반침략애국정신이 깃들어있는 금석문들을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잘 보존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임진조국전쟁, 비문, 대첩비, 의병